

# 200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1교시 언어 영역 •

1	②	2	⑤	3	⑤	4	③	5	⑤
6	③	7	①	8	④	9	②	10	②
11	④	12	④	13	④	14	④	15	②
16	⑤	17	②	18	①	19	①	20	⑤
21	②	22	③	23	③	24	①	25	①
26	①	27	④	28	③	29	③	30	①
31	③	32	②	33	⑤	34	④	35	①
36	④	37	②	38	②	39	④	40	②
41	⑤	42	④	43	④	44	③	45	③
46	③	47	⑤	48	②	49	④	50	③
51	②	52	⑤	53	③	54	①	55	④
56	①	57	③	58	②	59	③	60	⑤

### - 듣 기 -

#### 1. [출제 의도] 사실 정보 확인하기

이제 무용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속 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속 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1 : 예, 농악이랑 탈춤이요.

학생 2 : 선생님, 저는 강강술래가 대표적인 민속 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 네, 잘 알고 있군요. 농악, 탈춤, 강강술래 등은 모두 우리나라 민속 무용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은 강강술래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강강술래는 주로 여자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추는 춤입니다. 그리고 그 춤에 맞추어 노래를 서로 주고받는 놀이이지요. 그러니까 노래와 춤, 놀이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느린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서서 오른손은 앞사람 손을, 왼손은 뒷사람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돌다가, 점점 신명이 고조되어 가면서, 장단과 노래가 빨라짐에 따라 팔을 쭉 펴고 뛰게 되는데, 이것을 '자진 강강술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놀이가 진행되는데, 선두가 자기 왼손을 놓으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원의 중심을 향해 가는 것을 '덕석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두가 원의 중심에서 '덕석풀기'와는 반대로 돌아, 나선이 풀리는 방향으로 도는 것을 '덕석풀기'라 하지요. 이렇듯 강강술래는 둥글게 원을 이루며 노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직선으로 서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허리를 굽혀 앞사람의 왼쪽 허리에 오른쪽 얼굴을 대고 허리를 꺾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원이었던 대형이 일렬종대로 변형되지요. 그러면 맨 마지막 사람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대형의 등과 어깨를 밟고 건너가지요. 이것을 '지와밟기'라고 합니다.

[해설] 선생님이 설명한 강강술래는 장단이 빨라짐에 따라 팔을 쭉 펴고 뛰는 '자진 강강술래'(ㄴ)와 선두가 왼손을 놓으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원의 중심으로 향해 가는 '덕석풀기'(ㄱ), 그리고 그 반대로 도는 '덕석풀기'(ㄷ)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직선으로 노는 강강술래인 '지와밟기'(ㄷ)를 설명했다. 따라서 선생님이 설명한 강강술래는 'ㄴ - ㄱ - ㄷ' 순이다.

#### 2. [출제 의도] 중심 화제 파악하기

이번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엄마 : 너, 이게 뭐니! 이렇게 돈을 함부로 구겨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면 어떡해.

아들 : 어, 내가 그랬어요? 몰랐어요, 엄마.

엄마 : 너, 한 해 동안 훼손되거나 더러워져 못쓰게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아들 : 글썄, 만 장 정도 되나요?

엄마 : 아니야. 신문 기사를 보니 해마다 못쓰게 되는 돈은 9억 장이나 된다고 해. 5톤 트럭으로 194대 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야.

아들 : (놀라면서) 정말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못쓰게 되는 돈을 버리면 그만큼 화폐량이 줄지 않나요?

엄마 :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없애버린 만큼 새 돈을 만들게 된단다. 매년 새 돈을 만드는 데도 천억 원이나 쓰고 있다고 해.

아들 : (깜짝 놀라며) 정말 그렇게 많아요?

엄마 : 이제 알았니? 우리나라 돈은 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면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받는단다. 그런데 너처럼 돈을 꼬깃꼬깃 구겨서 다니거나 돈에 낙서를 하게 되면 돈의 수명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아들 : 그렇구나. 그런데 훼손되거나 지저분한 돈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돈은 그대로 쓰지 말고 가까운 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교환해서 사용해야 해. 또 돈이 불에 일부 타버렸을 때는 한국은행에 가면 교환을 해 준단다. 그러니까 돈을 깨끗이 쓰면 못쓰게 되는 돈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새 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아들 : 이제 저도 돈을 지갑에 넣어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가질게요.

엄마 : 그래. 다음에 또 바지 주머니에 돈을 구겨서 넣고 다니면 안 된다. 알았지?

[해설] 이 대화의 상황은 아들이 돈을 구겨서 사용하자 엄마가 아들에게 돈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에서의 중심 화제는 화폐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훼손된 돈의 양이나 이를 위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돈의 규모 또는 화폐를 제조하는 용지 등은 주변 화제에 해당한다.

#### 3. [출제 의도] 주어진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이번에는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사진기처럼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이란 심리적인 경험에 의해서 보는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 '심리적인 경험'이란, 어떤 물체를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활동을 조정하는 뇌를 통해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뇌가 어떻게 받아들인느냐가 바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관련된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잔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것은 사물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우리 눈의 망막에 비취지기 때문인데, 빛의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시각 기관에 어떤 흥분 상태가 계속돼 형태가 잠시 남게 되는 현상을 '잔상'이라고 합니다.

'잔상'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꺼운 도화지 한쪽에는 강아지 사진을 붙여놓고, 다른 한쪽

에는 창살 그림을 그려 놓은 다음, 도화지에 수수깡을 부채 자루처럼 연결합니다. 그리고 수수깡을 양손바닥 사이에 끼우고 힘차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마치 강아지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두 개의 그림을 빠른 속도로 번갈아 보게 되면, 마치 두 그림이 겹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정지된 대상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온 한 장면에 대한 자극이 시신경을 흥분시키게 되고,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음 장면에 의한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잔상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화 영화'입니다.

[해설] 강사는 잔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화 영화의 원리와 같은 사례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즉, 도화지 한쪽에는 강아지 그림을, 다른 한쪽에는 창살 그림을 그려 놓고 수수깡을 부채 자루처럼 붙여 놓은 다음 번갈아 빠르게 보게 되면, 마치 두 그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예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옥외 간판의 네온사인 글자이다. 네온사인의 글자는 하나씩의 불빛이지만 불빛이 켜지는 시간의 조정에 따라 마치 글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잔상'이란 대상을 보았을 때, 대상에 대한 자극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대상이 자극을 주어 마치 두 대상이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 4.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남) :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쓰레기가 곧 돈이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 OECD 평균치보다 적어졌습니다. 이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여) : 하루 6만여 톤씩 쏟아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 95년 시작된 종량제.(휴지) 시행 10년 만에 전체 쓰레기 양은 23%나 감소했습니다. 시민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여) :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를 콧속 채워서 버리죠. 봉투에 쓰레기를 다 채우지 않고 버리게 되면 봉투값이 아까워요."

기자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03kg으로, 미국의 2kg, 영국의 1.59kg, 일본의 1.12kg보다 낮고, OECD 30개국 평균인 1.56kg보다도 낮습니다. 반면 재활용은 175%가 증가해 경제적 효과는 컸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지난 1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는 재활용 자원이 7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미화원(남) : 종량제 봉투 안에는 종이나 플라스틱, 의류와 신발 등 많은 재활용 자원이 재활용할 수 없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 : 환경부는 이에 대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매우 저렴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인접해 있는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공동 수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처리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 뉴스 이환경입니다.

[해설] 방송된 뉴스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주부와 환경미화원의 인터뷰를 통해 화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관계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효과와 함께 발생한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의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내용과 제작 계획을 비교하면 제작 계획의 현장 취재 중 '전문 연구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자 의견의 뒷받침 자료로 활용' 부분은 방송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5-6]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어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직업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경 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직업을 소개해 주실 김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남) :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 '조경 기술자'..... 좀 생소한데요. 어떤 직업이지요?

김교수 : 음, 조경 기술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정원 등을 지형과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며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경 기술자는 설계 기술자와 시공 기술자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 기술자는 지역의 특성이나 용도에 맞게 벤치나 분수, 산책로 등 조경 시설물을 새롭게 배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시공 기술자는 설계에 의해 나무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전체적인 조경 건설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조경 기술은 설계와 시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직업에 종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김교수 : 일반적으로는 대학의 조경 관련 학과에서 조경과 식물의 생태,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쌓아야 합니다. 건설이나 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도 필요하지요. 아울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진행자 : 조경에 관한 전문 지식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해야겠군요. 그렇다면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교수 : 예, 앞으로 조경 기술자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녹지 확보와 생태 환경의 복원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이나 일반인의 경우도 옥상 조경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원이나 리조트 등의 여가 시설이나 관광지 개발도 조경 기술자의 수요를 증가시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조경 분야의 다양화로 인해 조경 기술자의 전망이 꽤나 밝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종사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요?

김교수 : 예, 우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기에 서로 협조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나 시공을 하다보면 그 시기의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보기에 좋은 조경이나 환경 친화적 조경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갈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경이지요.

진행자 : 인간 중심적 환경 철학과 서로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5. [출제 의도] 방송을 듣고 청취자의 반응 파악하기

[해설] 들려준 방송은 '조경 기술자'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김교수는 조경 기술자를 설계자와 시공자로 나누어 소개하고 이들 간에는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직업에 종사하려면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 등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조경 기술자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 배치에서 인간을 고려한 자세와 조경과 관련된 여러 전문 분야와 협조하는 태도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조경 기술자가 환경 문제를 규명하여 이를 해결하는 창의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6. [출제 의도] 방송 진행자 태도 평가하기

[해설] 방송 진행자는 조경 기술자에 대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직업과 관계된 질문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에서 진행자는 전문가인 '김교수'의 답변을 청취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해 주고 있다.

## - 쓰기 -

7. [출제 의도] 주제 설정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부인에게 '이봐'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명령조로 말하는 남편과 반말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아이들을 통해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음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어머니)에게만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 양성 평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온 가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모습에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직에 관한 내용은 단서가 없다.

8. [출제 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보기>의 '버려진 개'에 대한 자료는 애완견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기르다가 막상 싫어졌을 때는 버리는 사람들에 관한 통계 자료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업가'의 사례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을 비판하기 보다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자료로, 결과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자료의 공통된 내용은 '자신만을 중시하는 세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단계에서 '가치 중립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나 여기에서는 '올바른 과정과 수단을 통한 결과가 의미가 있다'는 논지로 글을 전개해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9. [출제 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조건은 비유법의 사용, 두 번째 조건은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에는 인간은 아름답기도 하고 욕망 때문에 추악하다는 상반된 관점이 나타나 있으며 추악한 욕망을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어 두 조건을 모두 반영한 표현으로 적절하다. ㉡은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은 첫 번째 조건이 없으며, ㉣과 ㉤에는 두 번째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10. [출제 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해결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ㄱ, ㄴ은 '문제점'의 첫째 항목에 대한 해결 방안이며, ㄷ은 셋째 항목 ㄹ은 둘째 항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ㄴ은 영화 제작에 관한 내용이므로 화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무관하다.

11. [출제 의도] 주제에 맞게 개요 수정 보완하기

[해설] '학습 만화 열풍'과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이다. ㉠은 학습 만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의 '학습 만화의 매출 증가'는 학습 만화 열풍의 원인이 아니라 원인에 의한 결과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서론'의 학습 만화 열풍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2. [출제 의도] 고쳐 쓰기

[해설] 주어진 글에서 ㉠은 주어인 '유산소성 운동'과 서술어인 '운동한다'는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어를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로 고쳐야 한다. ㉡에서 '증강'의 의미는 '인원, 설비 등을 더하여 굳세게 함'이고, '증진'의 의미는 '더하여 나아감'이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로 볼 때,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의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조사 '으로'가 붙은 형태이며, '하므로'는 동사 어간 '하-'에 까닭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므로'가 붙은 형태이다. 이때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써)'란 뜻을 나타내고,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란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므로'로 고쳐야 한다. ㉣의 '회수'는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뜻이고, '회수'는 '되풀이되는 일이나 차례의 수효'를 뜻한다. 따라서 맞춤법에 맞게 '회수'로 고쳐야 한다. 한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에 사잇소리를 넣어 표현(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셋방, 곳간, 숫자, 뒷간, 찻간 등이 있다. 그러나 ㉤의 경우는 앞 문장에서 설명한 운동 시간에 이어서 운동 빈도를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므로 '그리고'가 적절하다. 즉,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사이다.

13. [출제 의도] 음운 현상 이해하기

[해설] 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소리가 같은 계열로 동화되는 현상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나) 규칙을 적용하여 보면 ⑤의 '물난리'는 물+난리로서 먼저 '난리'가 [날리]로 발음되고, 그리고 '물'과 결합되어 [물랄리]로 발음이 된다. ④의 '얇는'에서 '얇'의 끝소리는 대표음인 'ㄹ'로 발음되어 '알'로 되고, '알+는'에서 (나)의 조건인 /ㄹ+ㄴ/은 /ㄹ+ㄹ/로 소리나기 때문에 [알ㄹ은]으로 발음해야 한다.

14. [출제 의도]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구별하기

[해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가 의미의 연관성 여부이다. ③의 '떡다'에서 '밥을 떡다'의 경우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는 뜻이고, '숨이 물을 떡다'에서는 '떡다'는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 두 경우에서 '떡다'는 '내부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어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므로 다의어이다. ④의 '가볍다'의 경우에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이지만 '가벼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이다.

## - 현대 시 -

[15-19] 출전 : (가) 이용악, '다리 위에서'  
(나) 고은, '큰집 고모'  
(다) 김명인, '비 속의 아버지'

15.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가)의 1연과 3연에서 화자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기입이 드러나고, 특히 3연에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곡을 했다'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의 2연에서도 화자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내밀한 과거를 토로하고 있으므로 두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공통적 태도는 ㉡의 '어린 시절의 일을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다.'가 적절하다. ㉢과 ㉤은 (다)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16.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해설] (가)의 '어른처럼 곡을 했다'는 ⑤의 진술처럼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화자의 모습'이 아니라, 제삿날의 상황 제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구절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은 2연에서 '다리'의 시적 기능이 과거와 현재의 매개 기능이므로 적절하다. ②는 "풀벌레 '우는' 가을철"에서 화자가 느끼는 쓸쓸한 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바람'과 '밤'은 일반적인 시어의 상징성과 전체 내용을 통해 화자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③), ④는 '제삿날'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을 '국숫집 아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가정이 '국숫집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7.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해설] 영단적 표현은 시에 나타나 있으나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시적 대상을 직접적인 이름으로 지칭하여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실제 이야기를 전하는 느낌을 주며(①), '오복녀 고모', '울음바다 이루어서', '간도가 어디인가'를 반복해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고(③), '오복녀'라는 이름과 오복녀의 불행한 처지를 선명히 대조하며 오복녀의 비극적 삶을 부각시키고 있으며(④), '모였다 - 데려다가 - 나눠먹었다 - 간도로 갔다 - 가버린 뒤'를 참고해 보면 시간과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⑤)을 알 수 있다.

18. [출제 의도] 장르 전환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다)에서는 아버지가 화자를 데리러 오는 장면이나 만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의 '주인공과 아버지가 만나는 상황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3연 '중년을 흔들어 깨우며'를 통해 화자는 중년으로 유년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고(②), '비'는 유년 시절 아버지와 이별을 떠올리는 소재로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대한 미움과 그리움의 심정을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드러낼 수 있고(③), '아버지 비속으로 가신다.'를 시의 시작과 끝에 배치해 완결성을 주고, 소설에서도 시작과 끝의 상황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서사 구조의 완결성을 줄 수 있다(④), 시에서도 화자를 '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소설에서의 1인칭 주인공 시점 설정(⑤)은 적절하다.

19.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보기>의 시는 회상을 통해 어머니와 유년기를 그리워하는 시다. 이 시의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이며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국숫집은 국숫집을 했던 화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고, '간도'는 고모가 떠나간 험겨운 삶의 공간을 의미하고, '땅'은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고, '골목길'은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간 쓸쓸한 공간, '밤'은 일상을 의미한다.

- 예 술 -

[20-23] 출전 : 이영훈 외, 『고분미술II』

20. [출제 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해설] 이 글은 금제 허리띠의 재질, 드리개, 드리개에 달린 장식품, 용도, 디자인 등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금제 허리띠가 지닌 신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의 특징을 서술하면서 대상이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글(⑤)이다. 금제 허리띠가 지닌 장단점(②)이나 상호 보완(①), 원리(④) 등의 문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적 방법으로 허리띠 장식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허리띠 장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③)

21.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해설] [A]에서 '울렁 반포를 계기로 ~ 화려한 장식을 대거 생략하고 실용적이면서 간소한 구조의 허리띠 장식만을 남기게 된다.'의 부분을 참조하면 허리띠의 장식은 의식용이나 장례용에서 실용적인 면으로 변화되었으므로 ②의 진술은 잘못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리띠 장식의 단순화와 허리띠 구조의 간소화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앞부분에서 출토될 때 천과 가죽 부분이 썩어 없어진다는 사실과 뒷부분에서 관리들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의 문맥적 의미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게 하다.'의 의미로 ③의 문맥적 의미와 같다. ①은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게 하다.'의 문맥적 의미를, ②는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의 문맥적 의미를, ④는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의 문맥적 의미를, ⑤는 '방이나 집 따위에 있거나 거처를 정해 머무르게 되다.'의 문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3. [출제 의도] 글쓴이 의도 파악하기

[해설] '신라의 찬란한 문화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금제 허리띠는, 첫째 문단의 '금으로 된 신라의 장신구들은 정밀하게 새겨져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를 통해 ③의 진술 '문화 예술적인 의의를 보여주려고' 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인의 자부심이나, 자연 친화 사상, 권세와 부를 초연한 정신 세계, 선비족 수준의 디자인 등은 본문의 내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고 전 소 설 -

[24-27] 출전 : 박지원, '김신선전'

24.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이 소설은 화자가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김 신선'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엔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화자가 '김 신선'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시켜 탐문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직접 찾아 다녔는데도 이야기만 무성할 뿐 찾을 수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①의 진술처럼 탐문을 통해 '김 신선'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결국 신선이 없기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25. [출제 의도] 소설의 창작 의도 추리하기

[해설] <보기>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 글의 '김 신선'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비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태도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①의 진술 '양반들의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려고'가 글쓴이의 창작 의도라고 볼 수 있다.

26. [출제 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해설]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여 삽화로 그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 속에는 화자가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김 신선'을 수소문하는 내용은 있으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모습(ㄴ)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신선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만나지 못한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다.(ㄹ)

27. [출제 의도] 인물에 대해 평가하기

[해설] 인물들이 '김 신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의 내용을 통해 '김 신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어떤 이'들이 '김 신선'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④의 '부분

적 평가'는 적절하다. 그리고 [B]에서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술자가 '신선'은 없으며 세상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고 총괄적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④의 '종합적 평가'는 적절하다.

- 사 회 -

[28-31] 출전 : 최병두 외, 『도시공동체론』

28. [출제 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해설] 셋째 문단에서 협동조합이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은 둘째 문단에서, ②는 마지막 문단에서, ④는 첫째 문단에서, ⑤는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 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해설] ㉠는 넷째 문단 '코윈의 경우는 생활의 대부분을 긴밀하게 공유하므로 지역성과 이념성이 모두 높은 반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거주 시설의 집단화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일단 지역성은 높지만, 구성원들의 목적의식이나 가치관의 동질성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넷째 문단 '~공간 근접성을 중시하지 않는다.'에서 목적 이념 지향성은 매우 높지만 지역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하기

[해설] ①의 '개인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는 '동질화된 세력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②의 '동창회를 조직하기 위해', ③의 '자치 마을을 만들기 위해', ④의 '봉사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⑤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는 각각 '공동체적 요소가 강한 동질화된 세력을 구성하려는 시도'의 사례로 적절하다.

31. [출제 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은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라는 의미이므로 ③이 적절하다.

- 과 학 -

[32-35] 출전 : 송방호 외, 『생명의 신비』

32. [출제 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해설] 넷째 문단의 '감기에 걸리면 먼저 감기를 걸리게 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냥 두고서 진통제와 해열제를 먼저 쓰고 2차 감염이 일어나면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내용은 ②의 진술과 배치된다. ①은 첫째 문단에서, ③은 둘째 문단에서, ④는 마지막 문단에서, ⑤는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이 글은 인간이 최초로 발견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세균에 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글(⑤)이다. ①~④의 '다양한 관점이나, 상반된 이론을 절충한 대안 제시, 다양한 이론, 가설 검증'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34. [출제 의도] 세부 정보 간의 관계 확인하기

[해설] 일반적으로 세균의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리칸층이 있고, 그것을 트랜스펩티다제가 세포벽 바깥에 있는 당단백질과 연결해 주는데(①), 이 효소의 작용을 페니실린이 억제하여 인체에 침투한 세균의 성장과 분화를 막음으로써 세균이 멸종되도록 하는 것이다.(②) 또한, 세균의 용해에는 자가분해효소라는 세균의 효소가 관여하는데, 페니실린이 세균 속에 존재하는 자가분해효소 저해제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그 세포가 신속하게 부서지도록 한다.(⑤) 반면, 페니실

린에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하여 페니실린 분해 효소로 페니실린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런 세균을 페니실린에 대하여 내성이 있다고 한다. ③ 그러나 자가분해효소로 인해 페니실린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페니실린 분해 효소를 지닌 세균이 출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다(④).

35.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보기>는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제시한 신문 기사이다. ①의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인 듯이 어찌 할 방책(方策)이 없어 꼼짝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페니실린 이외에도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책이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②의 학수고대(鶴首苦待)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어놓지 기다린다는 뜻으로, ③의 과대평가(過大評價)는 사실(事實)보다 지나치게 평가(評價)한다는 뜻으로, ④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은 모든 사물(事物)이 정도(程度)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⑤의 발본색원(拔本塞源)은 사물(事物)의 폐단(弊端)을 없애기 위해서 그 뿌리째 뽑아 버린다는 뜻으로, 각 문장에서의 쓰임이 적절하다.

- 현대 소설 -

[36-40] 출전 : 윤홍길, '집'

36.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해설] (라)에서는 '서술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고 있다. 또한, '현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했으나 인물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다.

37. [출제 의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의 성격 파악하기

[해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큰 집, 남의 집(셋방), 판잣집, 건설국 창고'로 나누어 공간의 성격을 정리해 보는 문제이다. 이 공간의 변화(㉠ → ㉡ → ㉢ → ㉣)는 가족들이 점점 몰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은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강'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승'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가)의 앞부분 '우리는 모두 ~ 전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를 통해 들 수 있다. 즉 가족들은 떠도는 삶을 살게 되면서 허술한 집을 꼼꼼하게 살피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가족들의 정착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집을 사고 말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8. [출제 의도]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 파악하기

[해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에서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고 인물과 사건에 대해 주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에서 서술자는 아버지가 친한 친구에게 큰 집을 '어처구니없이' 빼앗겼다고 서술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에서는 아버지가 무너져 가는 판잣집의 방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로 오후 한나절을 꼬박 시위를 벌인 것을 보고 '놀라운 인내력'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해 주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 의도] 다른 상황과 관련지어 작품 분석하기

[해설] 삽화는 중심 이야기의 중간에 끼워 넣은 이야기로 그 자체가 독립된 의미를 지니며, 상징적이거나 우화적인 기능을 갖는다. 삽화는 중심 이야기와는 이질적이면서도 결국 같은 의미를 내포하거나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거나 성격을 형성해 준다. ④에서 교회 사찰인 딸고만이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행동과 백마의 주인인 기사가 자신의 늙은 말에게 하는 행동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형과 백마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에서 형과 백마가 지닌 상처는 억울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40. [출제 의도] 다른 갈래와 연관 지어 이해하기

[해설] <보기>의 '깨알 같은 꿈'은 낡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바람을 막아주던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자존심 강한 '형'이 거처하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는 협소하고 누추했던 공간이었지만 형은 그곳을 잃고 절규한다. 이를 통해 형이 자기만의 그 공간을 지키고 싶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만의 세계'는 <보기>의 '깨알 같은 꿈'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기술 -

[41-44] 출전 : 김수삼 외, 『다시 기술이 미래다』

41. [출제 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해설] 위 글은 위그선의 특징을 비행기와 초고속선과 비교해 설명한 글이다. ⑤의 진술은 셋째 문단 첫 번째 문장 '위그선이 초고속선보다 더 빠르다'와 배치된다. ①은 여섯째 문단에서, ②와 ③은 셋째 문단에서, ④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 의도] 관련 자료와 연관 지어 적용하기

[해설] 그림은 수면 위를 날고 있는 위그선의 모형으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④의 진술처럼 위그선이 수면 가까이 날아갈 경우 날개 끝에 생기는 와류가 현격이 줄어들어 날개가 받는 양력, 즉 상승력은 공중을 비행하는 경우보다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위그선은 항공기와 운항 영역 및 고도가 다르므로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② '와류'란 공중을 비행하는 날개 끝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유동적인 소용돌이 현상으로 위그선을 전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위그선의 선체 하부는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으며, 소재도 신소재가 아니라 금속자재를 써야 한다. ⑤ 파랑(波浪)은 위그선의 이착수(離着水)에 장애가 되므로 위그선에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3. [출제 의도] 단어의 조합 방법 이해하기

[해설] ④ '원근감'의 경우 '원근'은 첫 번째 조건인 반의 관계는 충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통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 의도] 정보에 맞는 사례 찾기

[해설] ㉠의 '그 동안의 연구 결과'는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①은 넷째 문단, ②, ④는 셋째 문단, ⑤는 다섯째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다. ③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인문 -

[45-49] 출전 : 김형섭, 『융 심리학 입문』

45. [출제 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해설] 위 글은 융의 심리학에 대한 소개의 글로서 글쓰는 이는 '정신'이라는 대상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원형'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대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다.

46. [출제 의도] 개념 간의 관계 파악하기

[해설] '자아'는 무의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③의 '개인 무의식은 상황에 따라서 자아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A]에서 '자아는 자각하고 있는 지각(知覺), 기억,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며, 자아에 의해 존재로 인정되지 못하면 그것들은 자각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생각'은 자아에 의해 존재로 인정받아야 자각된다는 ①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와 ⑤는 [A]의 앞부분에서 ④는 [A]의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해설] 본문에서 '페르소나'를 개인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가면' 또는 '겉모습'이며, 사회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⑤의 영철이가 반장이 된 후 주위를 의식해서 근엄한 태도로 변하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페르소나'의 사례로 적절하다.

48.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수문장'의 의미는 경험이 의식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 자아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문맥적으로 어울리는 단어는 '액체를 걸러 내는 데 쓰는 기구'의 뜻을 가진 '여과기'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완충기'는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계량기'는 '수량을 헤아리거나, 부피나 무게 따위를 재는데 사용하는 장치', '감지기'는 '온도·압력·소리·빛 등의 물리량이나 그 변화량을 검출하는 소자(素子) 또는 장치', '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장치'를 의미하는 말로 대체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49.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해설] ①에서 아나바 원형은 여성성을 물려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영향으로 여자를 수용하게 하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원형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이 아나바 원형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융은 개인이 양성적 본성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면 건강한 성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으므로 ⑤의 판단 근거가 된다. 하지만 ④에서 핵심 원형인 자기 원형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른 원형들이 모두 무너진다고 볼 수는 없다.

- 고전시가·현대수필 (복합) -

[50-56] 출전 : (가)권근, '춘일성남즉사(春日城南卽事)' (나)정극인, '상춘곡' (다)법정, '섬진 빛마을의 매화'

50.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가)는 '살구꽃', (나)는 '녹양방초', (다)는 '매화'라는 자연물에 의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①은 (나)에 해당되지 않는 서술이다. ②는 (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는 (가)와 (다)에 해당되지 않고, (나)에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51.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해설] '봄바람'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①), '이슬비'는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②), '기울이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③), '청명'은 시간적 배경을, '집모서리'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⑤). 그러나 ④는 '두어 가지와 사람이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호응하는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52.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해설] (가)의 '살구꽃'은 '사람을 향해 기울이다'를 통해 화자가 자연인 매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며, (나)의 '도화 행화'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물(物)'에 해당하므로 '도화 행화'가 화자와 동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한 ⑤의 진술은 적절하다.

53. [출제 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해설] '새'와 '꽃떨기'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나)의 '새'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소재이며, <보기>의 '꽃떨기(㉠)'도 화자의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소재이다. 즉 '새'와 '꽃떨기'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54.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다)의 글쓴이는 멀리서 바라본 매화마을의 아름다움(외경)과, 가까이에서 살펴본 매화마을의 찌든 삶의 부스러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풍경(내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①의 '대상에 대한 양면성 대비'와 일치한다. ②는 과거와 현재는 나타나 있으나 대조의 방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5. [출제 의도]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다)의 서술상 특징은 공간의 이동과 회상 방식(②), 삽화를 통한 삶의 애환 소개(③),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⑤) 등이다. 그러나 상징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④)은 사용되지 않았다.

56. [출제 의도] 바꾸어 쓴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해설] ㉠의 기본형 '엎매이다'는 '엎매다'의 피동형으로 '엎매다'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이나, 여기에서 '집착하다'라는 문맥적 의미를 지닌다. '집착(執着)'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을 뜻한다. ㉡(흩어진)의 기본형 '흩어지다'는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이 '흩어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은 '산재(散在)한'이다. '산재하다'는 '흩어져 있다, 널려 있다'의 뜻을 지닌 어휘이다. 구애(拘礙)는 '거리끼거나 엎매임', '속박(束縛)'은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엎매거나 제한함', '확산(擴散)'은 '흩어져 널리 퍼짐', '산적(山積)'은 '물건이나 일이 산더미같이 쌓임', '산발(散發)'은 '때때로 일어남', '분산(分散)'은 '갈라져 흩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뜻하는 어휘이다.

- 언 어 -

[57-60] 출전 : 정호환, 『우리말의 상상력』

57.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해설] 셋째 문단에서 '유추의 본질은 변화를 통한 일종의 언어 창조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다. 첫째 문단에서 유추의 모형은 절대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①), 둘째 문단에서 음운 변화가 음절 구조 내의 변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②), 다섯째 문단에서 단일어가 모여 합성어를 이루는 경향이 짙은 언어는 유추에 따른 언어 창조가 가장 알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⑤), 마지막 문단에서 유추된 어휘나 문법 형태소도 사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④).

58.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하기

[해설] 이 글은 유추의 모형에 따라 언어가 매우 생산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셋째 문단의 '공통 요소를 가지고 기억하기 편하게'를 통하여 언어의 편이성(①), 간편성, 통일성(⑤), 기억의 용이성(④)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를 개성 있게 사용하려 한다'(②)는 것은 단어를 유추의 모형에 따라 통일되게 사용하려는 특성과 배치된다. 그리고 둘째 문단을 통해 음운 변화는 규칙에 맞는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 바뀌어서 사용하려고 한다(③)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59. [출제 의도] 정보의 개념과 관계 파악하기

[해설] ㉠은 통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유추 심리로 작용하는 모형이고 단어들은 이 모형에 따라 변화하고, ㉢의 '처엄', '일흠', '소곰'은 서로 '이름씨'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는 유추 작용에 의해 변화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는 명사에서 다시 명사로 파생된 형태이다.

60. [출제 의도] 어휘 구조 파악하기

[해설] <보기>는 '아스라이'가 '하다'가 붙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로 파생된 단어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곳이' 역시, '하다'가 붙은 형용사 '다소곳하다'의 어근 '다소곳'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 '다소곳이'로 파생된 단어이다. '다름없이'와 '감쪽같이', '너그러이'는 형용사의 어근이기는 하지만 '하다'가 붙지 않은 형용사의 어근으로 '아스라이'와 차이가 있다. '가을같이'는 명사이다.